

# LED·금형·의료용품 주도...MIG 수출길 활짝

〈Made in Gwangju〉

## 광주 세계한상대회 성과와 과제

### 해외 기업과 사전 '매칭' 등 성공 요인 실계약까지 네트워크 관리 이뤄져야

호남권에서 최초로 열린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지난 대회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전략으로 사상 최대의 경제효과를 이뤄냈다. 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수출협약이 예상되면서 광주시는 투자·수출협약을 실제 계약으로 이끌어 내도록 한상과 지역

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안겨 왔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한상대회 마지막날인 이날 기준 11개국 24개사가 투자 8건 1억3000만 달러, 수출협약 18건 2억8750만 달러 등 총 26건 3억905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수

출협약을 체결, 풍성한 성과를 올렸다. 일본의 토미사가 치과 교정재료기술 이전 및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오스트리아의 영산그룹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을, 베트남 아온텍스와 독일 렌스가 직물제품생산공장, LED 공장을 각각 설립하는 등 투자협약만 1억 달러를 넘어섰다.

해외 수출은 광주의 주력산업인 광산업과 금형산업이 주도했다. 미국과 바스크르코스탄 공화국, 일본 등은 광주의 보증 브랜드인 'MIG'(Made in Gwangju) 브랜드의 LED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고, 자동차부품 프레스 금형은 잇따라 금형선진국 일본으로

수출길을 뚫었다. 자동차제동기와 온열기 등 의료용품도 대만과 미국에서 협약을 맺었다.

대구와 부산 서울에서 열렸던 최근 3년간의 한상대회에서 투자 실적의 거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효과의 경제대회'를 이뤄낸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가 성공대회를 치러낸 데는 1년 전부터 해외 기업과 광주 기업 간 사전 '매칭'(Matching) 작업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 일찌감치 기업의 기술력과 정보를 취직한 한상들은 실제 제품을 보자마자 쉽게 수출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한상대회 주요 프로그램인 기업전

시회(430개 기업 463개 부스)에서 일대일 비즈니스미팅(265건)과 유튜브 이어 초청상담회 등을 통해 수출협약 기회를 확대한 것도 장차 광주지역 기업의 특수가 예상되는 점이다.

기업전시회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사흘 내내 전시장에 복직거리 정도로 활기를 띠는데 쉽게 만나지 못했던 거품 한상과의 수출협약이 진행되면서 업체마다 크게 고무된 분위기가"라며 "수출협약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은 물론, 광주시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한상 네트워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삼성전자 '2014형 갤럭시 노트 10.1' 출시 화면 커지고 가벼워져...S펜 기능 탑재

삼성전자가 대화면에 더욱 새롭고 편리한 S펜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노트 10.1 2014 에디션'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WQXGA(2560X1600) 고해상도의 255.4mm 대화면으로 기존 갤럭시 노트 10.1보다 더욱 선명한 화질을 보여 주며 기존 갤럭시 노트 10.1보다 더욱 얇고 가벼우면서 가죽 질감을 살린 후면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S펜의 5가지 주요 기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에어커맨드'를 비롯해 '갤럭시 노트 3'에 적용된 주요 기능을 즐길 수 있다.

안드로이드 젤리빈 4.3 플랫폼에 LTE-A 모델은 2.3GHz 쿼드코어, 와이파이가 모델은 1.9GHz 옥타코어 프



로세서에 3GB 램, 8,220mAh 대용량 배터리를 채용했다. '갤럭시 노트 10.1 2014 에디션'은 클래식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출고가는 LTE-A 모델은 94만6000원, 와이파이가 모델은 79만9000원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수능 수험생 수송 예약하세요

### 기아차 수능일 광주·전남 6개 권역 봉사활동

기아자동차가 올해 대입수능 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수능 당일 '수험생 수송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기아차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시험 당일인 7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30분까지 2014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광주권(광산·남동·북서권)과 전남권(동부·중부·서부권) 등 총 6개 권역으로 구분, 총 25개 지점에서 직원 300명이 고3 수험생 수송을 펼친다.

이를 위해 기아차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전직원들은 지점별로 차량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고, 일대일 전담으로 수험생을 수송장까지 수송한다.

수험생 수송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11월4일부터 6일까지의 사전 예약 접수 기간 동안 기아차 ARS 고객센터(1588-1100)나 광주전남지역본부(062-383-1700)로 연락하면 수험생의 거처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지점과 연결해 주며, 각 지점에서는 수험생 및 학부모와 사전에 수험장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수능 시험 당일 완벽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아시아나 항공부문 최우수기업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30일 서울 그랜드하이얏트호텔에서 열린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컨퍼런스'에서 항공부문 최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한태근 경영지원본부장(왼쪽 두번째)이 크레이그 라자라 S&P 다우존스 글로벌 인덱스 투자전략 최고책임자(왼쪽 세번째)와 함께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30일 서울 그랜드하이얏트호텔에서 열린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컨퍼런스'에서 항공부문 최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한태근 경영지원본부장(왼쪽 두번째)이 크레이그 라자라 S&P 다우존스 글로벌 인덱스 투자전략 최고책임자(왼쪽 세번째)와 함께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 공정위 대형마트·백화점 과징금 예고

### 6곳 불공정 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6개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내달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개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이후 올해 8월월부터 각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왔다. 이번 위원회 심의로 처벌 여부가 확정되면 작년 1월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제재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 대비 2%이지만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면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감입대료 범위로 넓어져 제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조사에서 관측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철뉴스

## 1~9월 '세수 핑크' 4조원대로 줄어

국제 징수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른바 '세수 핑크' 규모가 4조원대로 줄어 들었다.

국제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3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제 수입은 144조8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8조7344억원 대비 4조6486억원 부족하다. 이는 지난 6월 기준 세수 부족액인 10조1000억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세수 부족액은 6월을 피크로 7월 8조3000억원, 8월 6조원으로 점차 하락곡선을 그려왔다. 다만 9월까지 세수 진도비는 72.4%로 작년 동기의

77.4%, 2011년 9월의 79.9%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징수액이 37조213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조1544억원 줄었다. 기타 부문의 세수 보족액도 2조7941억원에 달한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16억원, 5319억원, 1364억원 늘어났다.

이낙연 의원은 "세수 부족을 매우 우려가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진도율이 예전보다 낮다"면서 "다만 무리한 세수 충당을 위해 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철뉴스

## 전국 전셋값 14개월 연속 상승행진

### 매매가 2개월 연속 오름세

전국 주택의 전셋값과 집값이 각각 14개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은 10월 전국주택의 매매가격이 0.29% 상승해 2개월째 오름세를 나타냈고, 전세가격은 0.68% 올라 14개월 연속 상승행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택 매매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심리가 회복하면서 전담

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수도권은 0.33%, 지방은 0.25% 각각 상승했다.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은 대구(0.73%), 경북(0.56%), 충남(0.36%), 인천(0.35%), 서울(0.33%), 경기(0.32%), 세종(0.30%), 경남(0.24%) 등이 올랐고 전남(-0.07%)과 전북(-0.02%)은 내렸다.

서울에선 송파구(0.97%), 관악구(0.59%), 노원구(0.56%), 도봉구(0.55%), 금천구(0.51%), 중랑구(0.50%)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주택 전

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01%, 0.37% 올랐다.

지역별로는 인천(1.09%), 서울(1.04%), 경기(0.96%), 대구(0.94%), 충남(0.77%), 세종(0.63%), 경북(0.59%), 경남(0.41%), 대전(0.34%), 부산(0.24%) 등 순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 전세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전담보다 상승폭이 컸다. 전국 주택의 매매평균가격과 전세 평균 가격은 각각 2억2974만원, 1억3512만원으로 전담보다 올랐다. /연철뉴스

코스피지수 2030.09 (-29.49)	코스닥지수 532.44 (-5.24)	금리(국고채 3년) 2.82% (+0.03)	원·달러 환율 1060.70원 (+0.50)
---------------------------	-------------------------	-----------------------------	-----------------------------

## 새 얼굴

### "분리발주제 확립 등 수주 확대 노력"

#### 정중오 전문건설협 전남도회장



"불합리한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와 시공참여제 제도를 부활하는 등 회원들의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일 제10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에 취임한 정중오(53) 卍제일토건 대표이사는 "건설공사 분리발주제 확립,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를 통해 회원사 수주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단축과 공정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협회 중앙회 대의원과 전남도회 수석부회장, 전문건설공제조합 대의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4년간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학생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배님들의 일을 다시 한번 기립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음 10. 3) 우리의 개국일은 개천절과 일본의 국경일인 명치절이 겹친가운데 한국학생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민족적 울분을 갖게된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의거이며, 3. 1운동에 버금가는 민족해방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기념하여 이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학생들은 이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선배님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싸웠습니다. 6·10만세와 광주학생독립운동, 이모든 나날들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자리에 존재해 희망차게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항일투쟁으로부터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11월 3일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님들을 위해 고개숙여 다시 한번 지난 그날들을 상기해 봅시다.

- 목포교육지원청
- 국립목포대학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새한대학교
- 초당대학교
- 목포가톨릭대학교
- 동아인재대학
- 목포과학대학
- 한국폴리텍대학목포캠퍼스
- 한국학원목포시총연합회
- 신안교육지원청